

intro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폭력 총여학생회라고 이름을 붙인 값을 치르는 것인지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하나가 끝나기가 무섭게 계속 접수되는 사건들..ㅠ_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학내/외에서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묻히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올해 초 접수되었던 법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대로 신고되어 총여학생회로 접수된 법대 사건은, 사실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겨져 묻혀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사건이 처리되고, 공개되면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력만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구도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도 알리는 기회였다.

1. 한 학기 동안 접수된 성폭력 사건

1)법대 사건/2)상대 사건/3)사회대 사건/4)전학협 문화제 사건/5)총학생회 사건/6)대중행동 광장 사건/7)간호대 연고제 사건

-각 사건에 대한 평가.

1)모범사례^^;

2)학칙으로 처리된 첫 번째 사례. 학칙의 한계점이나 해결 과정의 지난함 등도 드러나게 된 사건.

3)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줌. 법대 사건 이후 대책위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나 성폭력 사건의 원칙적인 처리를 일깨워준 사건.

4)학내에서 벌어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집단적 성폭력. 하지만 학생 운동 조직 간의 대결구도(?) 비슷하게 흐른 부분도 있었고, 총여 또한 입장 발표(이 또한 내부적으로 완전히 논의 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조직 내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이 해결되는 향방에 따라 드러나지 않지만 만연되어 있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일침을 놓을 수도...

(6)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다. 일단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할 단위 쪽에서 사전 지식이나 역량이 너무 부족하여 거의 총여 쪽에 맡기려 하였고, 가해자 신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해결이 힘들었다. 가능하다면 운동 사회 내 성폭력에 관한 교양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이 후로 함께 하게 된다면 이런 교양을 진행하거나 자료집을 내는 것도 좋을 듯

(7)연고제 후에 신고된 사건, 여성제와 선거를 거치면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연고제 자료집이나 내규 자료집에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2.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건 해결의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만나는 과정도 중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가해자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대처 (사회대 사건을 중심으로)

왜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가,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 등을 짚어주고, 가해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해야 한다.

*대책위 구성-비상대책위원회, 학칙으로 처리되는 대책위원회

*학생회 단위들로 구성되는 비대위나, 새터내규에 따르는 대책위는 총여(를 포함한 학생 단위)가 자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므로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가 무척 유리하지만, 그만큼 가해자들에게 ‘공식적’ 압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적다. 가해자들이 대책위를 공식적인 기구로 보고, 심리적 압박이나 강제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

대책위를 진행하다보면 대책위원들이 스스로 많이 힘이 빠지게 된다. 가해자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거나 진행이 더딜 때, 피해자가 힘들어할 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거나 대책위가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물론 대책위가 지적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들이나 주위 상황들로 인해 위축되는 경우들도 많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힘을 돌아주고, 가해자를 계속해서 만나야하며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대책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책위를 진행하면서 서로 힘을 분담아 주는 것,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애쓰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학내에서 성폭력 담론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선불리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 담론을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자료집 발간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